

켄 윌버의 통합이론에 기반한

그리스도교 심리영성의 이해와 실천

폴 스미스의 <통합이론으로 본 그리스도교> 특강 진행계획(6 주)

1. 서론: “탈 종교화” 시대의 대안적 그리스도교 영성 수련의 필요성

1.1. 목적 및 배경

본 강의는 오늘날 그리스도교가 직면한 지적, 영적 한계를 염두에 두고, 새로운 차원으로의 신앙 성숙을 도모하기 위해 폴 스미스Paul Smith의 저서『통합이론으로 본 그리스도교Integral Christianity』를 기반으로 한 6주간의 교육과정을 목적으로 한다. 본 교육과정의 잠재적 대상은 영성에 관심있는 심리치료자/심리상담자, 켄 윌버Ken Wilber의 독자들, 제도권 교회에 거리를 두고 있거나 좀 더 깊이 있는 신앙과 영성을 모색하는 분들, 그리고 영성과 인문학과 통합사상의 연결에 관심 있는 분들을 참여자로 상정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윌버의 통합이론과 그리스도교 또는 영성에 대한 관심일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교를 단순한 교리 교육이나 감정적 위로를 넘어, 지적 정합성과 심층심리학적 통찰, 그리고 실존적 영성 체험이 통합된 교육을 통해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일 것이다.¹ 따라서 본 계획서는 켄 윌버의 통합이론Integral Theory을 그리스도교 영성에 접목하는 폴 스미스의 이론적 틀을 분석하고, 이를 실제 강의에 적용하여 구체적인 커리큘럼, 교수법, 토론 주제, 참고자료와 함께 제시한다.

1.2. 교육 대상의 특성 및 요구 분석

본 교육과정의 성패는 공통점도 있지만 배경은 상이한 여러 그룹의 청중이 가진 고유한 욕구와 언어를 어떻게 '통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대상 그룹	핵심 특징 및 배경	교육적 요구(Needs)	통합적 접근 전략
심리치료자/ 심리상담자	인간 발달, 무의식, 병리, 치유에 대한 전문지식 보유. 종교적 언어를 심리학적 기제로 해석하려는 경향.	종교적 체험의 심리학적 타당성 확인. 내담자의 영적 문제를 다룰 프레임워크 습득. '그림자Shadow' 작업의 영적 적용.	기존의 발달심리학 내용의 확장하여 초개인적 영역을 인간의 잠재적 발달 단계로 수용하고 적용토록 설명.
켄 월버의 독자들과 연구자들	통합이론(AQAL)에 대한 높은 이해도. 4분면, 수준, 라인, 상태, 타입 등의 개념에 익숙함.	월버의 통합이론이 구체적인 종교 전통(이 경우 그리스도교) 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 이론의 실천적 적용(Praxis).	스미스의 '영적 위치 파악시스템(UPS)'을 월버의 AQAL 모델과 대조하며 설명. 그리스도교 신비주의와 월버 철학의 접점 강조.
'가나안' 성도 또는 영성의 심화, 인문학적 이해를 추구하는 분들	기존 교회의 배타성, 반지성주의, 권위주의에 대한 반감. 영적 갈급함은 있으나 소속될 공동체 부재. 또는 제도 종교에 몸담고 있지만 영성의 심화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분들, 인문학적 호기심이 있는 분들.	지적으로 납득 가능하고 가슴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신앙 또는 영성의 길 모색, 그리고 동일한 관심사의 사람들과 관계망 구성. 종교/영성에 대한 인문학적 이해의 모색.	'포함하고 초월하기' 원리를 통해 과거 신앙 역시 소중한 유산이며 월버적 재해석을 통해 통합. 안전한 토론 공간 제공. 전개인-개인-초개인으로 이어지는 인간 발달에 대한 이해.

1.3. 핵심 이론적 틀: 영적 위치파악시스템(SPS)

본 커리큘럼의 근간은 <통합이론으로 본 그리스도교>의 저자 폴 스미스가 제안하는 '영적 위치파악 시스템(Spiritual Positioning System(SPS))'이다. 이는 GPS가 위성을 통해 위치를 파악하듯, 각자의 영적 현주소를 파악하게 해주는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¹

1. 단계(Stages): 의식의 발달 수준 (부족, 전사, 전통, 근대, 포스트모던, 통합)
2. 상태(States): 의식의 일시적 체험 (거친, 정묘, 시원, 비이원)
3. 관점(Perspectives): 하느님을 인식하는 1인칭, 2인칭, 3인칭 시각
4. 그림자(Shadow): 억압된 무의식과 심리적 치유
5. 수련(Practice): 변용을 위한 통합적 수련(ILP)

2. 모듈 1: 의식의 발달과 신앙의 진화 (1-2 주차)

2.1. 1주차: 영적 지도 읽기 - 발달 단계의 이해와 재해석

주제: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 신앙의 발달 단계와 하느님 이미지의 변화"

2.1.1. 강의 내용 심층 분석

1주차는 수강생들이 자신의 영적 여정을 객관화할 수 있는 '지도'를 제공하는 데 주력한다. 스미스는 의식의 발달이 '자기중심Egocentric'에서 '민족중심Ethnocentric', 그리고 '세계중심Worldcentric'으로 확장되는 과정임을 강조한다.¹

- 영적 위치파악시스템(SPS) 도입: GPS가 24개의 위성을 이용해 위치를 잡듯, 통합이론은 인류의 지혜 전통을 망라하여 의식의 지도를 그린다. 이는 단순한 분류가 아니라, 내가 현재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네비게이션이다.
- 부족(Tribal) 단계 - '마법과 안전':
 - 특징: 세상을 마법적인 공간으로 인식. 미신과 부적, 기복 신앙이 지배.
 - 사례 분석: 책에 등장하는 어린 '캐롤'의 이야기(자전거를 얻기 위해 성모상을 인질로 잡고 하느님을 협박하는 편지)는 부족 단계의 '거래적 신앙'과 '마법적 사고'를 극명하게 보여준

다.¹ 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십일조를 하면 복을 받는다"는 식의 기복 신앙으로 잔존한다.

- 심리상담적 접근: 이 단계는 '안전' 욕구가 핵심이다. 상담사는 내담자의 미신적 사고를 비난하기보다 그 이면의 불안을 읽어야 한다.
- 전사(Warrior) 단계 - '힘과 복종':
 - 특징: 힘이 곧 정의. 강력한 신, 보복하는 신. 세상을 선과 악의 전쟁터로 인식.
 - 하느님 이미지: 구약의 전쟁하는 야훼. 적들을 쓸어버리는 강력한 군주.
 - 현대적 현상: 근본주의 기독교, 배타적 선교, 영적 전쟁론. 아프리카 이민자 교회의 철야 기도회 사례(악령과의 물리적 전투)는 이 단계의 생생한 예시다.¹
- 전통(Traditional) 단계 - '질서와 순응':
 - 특징: 법, 규율, 도덕, 위계질서 중시. '가재 증후군'(집단을 벗어나려는 개체를 다시 끌어내리는 현상)이 강하게 작용하여 변화를 저항한다.¹
 - 가나안 성도와와의 접점: 대부분의 가나안 성도는 이 단계의 경직성과 배타성(구원은 오직 우리 교회에만 있다)에 질려 교회를 떠났다. 그러나 강의는 이 단계가 제공했던 '소속감'과 '안정감'의 가치를 인정해주어야 한다.

2.1.2. 토론 및 질의응답 가이드

- 아이스브레이킹: "어린 시절 하느님을 어떻게 상상했나요? 그 이미지가 지금은 어떻게 변했나요?"
- 심층 토론 (심리상담사 & 월버리안): "매슬로의 욕구 위계 이론과 스미스의 의식 발달 단계(부족-안전, 전사-힘, 전통-소속)를 연결해볼 때, 한국 교회의 주류 정서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 보는가?"
- 실존적 질문 (가나안 성도): "전통적 교회를 떠나면서 느꼈던 해방감 이면에, 혹시 '소속감의 상실'이나 '영적 고아'가 된 듯한 불안감은 없었는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2.1.3. 참고자료

- 도서: 제임스 파울러, 『신앙의 발달 단계』 (심리학적 배경 강화)
 - 자료: 켄 월버의 '통합 심리학' 도표 (의식의 스펙트럼 시각화)
-

2.2. 2 주차:

이성의 빛과 그 너머 - 근대, 포스트모던, 그리고 통합으로의 도약

주제: "해체를 넘어 통합으로 - 과학, 다원주의, 그리고 새로운 신앙의 집 짓기"

2.2.1. 강의 내용 심층 분석

2주차는 전통적 신앙이 무너진 자리(가나안 성도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그 너머의 비전을 제시한다.

- 근대(Modern) 단계 - '이성과 성취':
 - 특징: 과학적 합리성, 개인주의, 성취 지향. 성서의 기적을 신화로 치부(비신화화).
 - 하느님 이미지: 시계공 하느님(이신론), 비인격적 원리. 존 웰비 스펜 주교의 "유신론의 종말" 선언이 대표적이다.¹
 - 한계: '거르기(Filtering)'의 문제. 이성애 맞지 않는 신비 체험, 영적 깊이를 모두 걸러내어 신앙을 건조하게 만든다. 가나안 성도들이 흔히 빠지는 '지적 허무주의'의 단계이기도 하다.
- 포스트모던(Postmodern) 단계 - '포용과 평면':
 - 특징: 다원주의, 상대주의, 감수성, 평등. 모든 종교는 동등하다고 본다.
 - 함정: '평면화(Flatland)'. 모든 가치를 동등하게 여기다 보니 깊이와 위계를 상실한다. 영적 나르시시즘이나 뉴에이지적 혼합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다.¹ 스미스는 이 단계를 "깊이는 3인치인데 넓이는 300마일"이라고 비판한다.
- 통합(Integral) 단계 - '재구성과 변용':
 - 핵심 원리: '포용하고 초월하기(Transcend and Include)'. 이전 단계들의 가치(전통의 헌신, 근대의 이성, 포스트모던의 포용)를 모두 인정하되, 그 한계를 뛰어넘는다.
 - 비전: 제2의 계층(Second Tier) 의식. 자신의 단계가 옳다고 주장하는 1계층(부족~포스트모던)과 달리, 통합 단계는 모든 단계가 인류 성장의 필수 과정임을 이해하고 조망한다.

2.2.2. 토론 및 질의응답 가이드

- 핵심 질문 (가나안 성도): "당신은 기독교의 배타성이 싫어서 떠났는가(포스트모던적 반발), 아니면 비과학적인 교리가 싫어서 떠났는가(근대적 반발)? 현재 당신의 신앙은 '무엇을 믿지 않는가'로 정의되는가, '무엇을 믿는가'로 정의되는가?"
- 전문가 토론 (상담사 & 월버리안): "포스트모던 내담자들이 겪는 '방향 상실'과 '우울'을 통합적 관점에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절대 진리'가 사라진 시대에 '건강한 위계'를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는가?"

2.2.3. 참고자료

- 도서: 마커스 보그, 『그리스도교의 심장』 (근대/포스트모던 신학의 정수)[번역서명 '기독교의 심장']
- 인물 탐구: 존 셸비 스펡 vs. 마커스 보그 vs. 켄 월버의 기독교관 비교표.

3. 모듈 2: 영적 체험의 과학과 신비 (3 주차)

3.1. 3 주차: 상태(States) - 깨어남의 기술과 예수의 의식

주제: "예수는 어떤 의식 상태에 있었는가? - 거친, 정묘, 시원, 비이원 상태의 체험"

3.1.1. 강의 내용 심층 분석

3주차는 월버의 '상태(States)' 개념을 통해 기독교의 신비 체험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이는 상담사들에게는 '변성 의식 상태(ASC)'에 대한 임상적 이해를, 월버리안에게는 이론의 실재를 제공한다.

- 의식의 4가지 상태와 기독교적 대응:
 - 거친(Gross) 상태 - 자아 의식: 일상적인 깨어있음. 마르타의 분주함.¹
 - 정묘(Subtle) 상태 - 영적 연결: 꿈, 환상, 영감. 마리아가 예수 발치에서 경험한 몰입.

- **예수의 체험:** 나다나엘을 미리 본 텔레파시, 변모산에서 모세/엘리야와 대화한 영적 교신, 치유 에너지의 전이(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됨).
- **현대적 적용:** 방언(Glossolalia), 예언, 꿈 작업. 스미스는 이를 "뉴에이지의 전유물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일상"이었다고 강조한다.¹
- **시원(Causal) 상태 - 텅 빈 충만:** 깊은 잠, 형상 없는 직관. 겿세마네의 침묵,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 **비이원(Non-dual) 상태 - 그리스도 의식:** 보는 자와 보이는 것의 합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 **윌버-콤즈 격자(Wilber-Combs Lattice)의 적용:**
 - 같은 '빛을 보는 체험(정묘 상태)'이라도, 전사 단계에서는 "신이 나에게 전쟁 승리의 계시를 주셨다"고 해석하고, 통합 단계에서는 "내면의 신성이 빛의 형상으로 드러났다"고 해석한다. 체험은 같아도 해석은 발달 단계에 종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 **뇌과학과 영성:** 스미스는 방언이나 무아지경이 우뇌의 활성화와 좌뇌 언어 중추의 연합 활동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¹ 이는 심리상담사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지점이다.

3.1.2. 토론 및 질의응답 가이드

- **체험 나누기:** "기도나 명상 중 '나'라는 감각이 사라지거나, 설명할 수 없는 평온/빛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 **비판적 토론:** "한국 교회에서 '방언'이나 '환상'은 종종 광신으로 치부되거나 영적 우월감의 도구가 된다. 통합적 시각에서 이러한 정묘 상태 체험을 어떻게 건강하게 수용하고 제어할 수 있는가?"

3.1.3. 실습 및 참고자료

- **실습:** 뇌파 동조 기술(Brainwave Entrainment) 음악을 들으며 10분간 침묵 기도 실습 (스미스의 개인적 수련법 참조).¹
- **자료:** 짐 매리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그리스도교 신비주의 발달 단계). [국내 미출간]

4. 모듈 3: 하느님에 대한 3 차원적 인식 (4 주차)

4.1. 4 주차: 관점(Perspectives) - 하느님의 세 얼굴과 삼위일체

주제: "3D 하느님을 만나다 - 무한한, 친밀한, 내밀한 하느님"

4.1.1. 강의 내용 심층 분석

"하느님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하느님을 어떤 인칭으로 만나는가?"로 전환한다.

- 1인칭 하느님 (The Inner Face) - '나(I)':
 - 개념: 내면의 신성, 참 자아(True Self).
 - 예수의 선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 쟁점: 전통 교회는 이를 신성모독으로 여겼으나, 통합적 시각에서는 인간 내면의 '신성의 불꽃'을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 2인칭 하느님 (The Intimate Face) - '당신(You)':
 - 개념: 인격적 관계의 대상, 사랑하는 타자.
 - 예수의 기도: "아빠(Abba), 아버지".
 - 중요성: 아무리 깨달음이 깊어도(1인칭), 관계적 사랑(2인칭)이 없으면 영적 메마름에 빠진다. 헌신과 예배의 대상.
- 3인칭 하느님 (The Infinite Face) - '그것(It)':
 - 개념: 우주적 지성, 창조의 근원, 진화의 에너지, 범재신론(Panentheism)적 신.
 - 과학과의 대화: 빅뱅, 진화론, 양자역학이 설명하는 우주의 신비. "하느님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 삼위일체의 통합적 재해석: 전통적 삼위일체(성부, 성자, 성령)를 1-2-3인칭의 통합으로 재해석한다. 성령(내면의 감동-1인칭/2인칭), 성자(역사적 현현-2인칭/3인칭), 성부(초월적 근원-3인칭)의 도식을 넘어, 하느님을 입체적으로 경험하는 틀로 제시한다.

4.1.2. 토론 및 질의응답 가이드

- 적용 질문: "당신의 기도 생활은 주로 몇 인칭에 머물러 있습니까? (예: 2인칭의 간구만 하는가, 아니면 3인칭의 관조만 하는가?) 소홀히 했던 '하느님의 얼굴'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 심층 토론 (가나안 성도): "기존 교회에서 '내 안의 하느님(1인칭)'을 인정받지 못해 겪었던 갈등이 있는가? 반대로 3인칭의 우주적 하느님만 찾다가 인격적 관계성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4.1.3. 참고자료

- 도서: 켄 월버, 『통합 영성』 중 '3가지 얼굴의 신' 챕터.
- 시: 하피즈(Hafiz)나 루미(Rumi)의 신비주의 시 낭독 (2인칭과 1인칭의 혼재).

5. 모듈 4: 내면의 통합과 공동체의 미래 (5-6 주차)

5.1. 5 주차: 그림자(Shadow)와 치유 - 온전한 나로 서기

주제: "빛 뒤에 숨은 어둠을 직면하다 - 3-2-1 그림자 작업과 내적 치유"

5.1.1. 강의 내용 심층 분석

이 주차는 심리상담사들의 전문성이 가장 빛을 발하는 시간이자, 상처 입은 가나안 성도들에게 치유를 제공하는 시간이다.

- 종교적 그림자:
 - 억압된 공격성: '착한 신자' 콤플렉스로 인해 전사 단계의 에너지를 억압하면 수동 공격성이나 위선으로 나타난다.
 - 억압된 신성: "나는 죄인이다"라는 교리에 갇혀 자신의 빛나는 잠재력(신성)을 무의식으로 밀어넣는 '황금 그림자(Golden Shadow)'.
- 3-2-1 그림자 프로세스 (켄 월버의 기법):
 - 3인칭(그것): 혐오스럽거나 과도하게 끌리는 대상(꿈 속 인물, 싫어하는 교인 등)을 객관적으로 관찰.
 - 2인칭(당신): 그 대상과 대화(Talk to it). "너는 왜 나를 괴롭히니? 나에게 원하는 게 뭐니?"
 - 1인칭(나): 그 대상이 바로 나 자신의 억압된 일부임을 인정하고 통합(Be it).
- 내적 치유의 영적 차원: 스미스는 심리적 기법과 함께 '성령의 치유 에너지'를 결합할 것을 제

안한다. 치유는 심리적 분석을 넘어선 에너지의 소통이다.¹

5.1.2. 토론 및 실습

- 실습: 2인 1조로 3-2-1 그림자 작업 약식 진행. (상담사가 퍼실리테이터 역할 수행 권장)
- 토론: "교회 생활이 오히려 당신의 그림자를 강화시켰던 경험이 있습니까? (예: 영적 우월감, 배타성, 죄책감)"

5.2. 6 주차: 통합 교회(Integral Church)와 수련 - 미래를 위한 실천

주제: "세상 속의 통합적 그리스도인 - 통합적 생활 수련(ILP)과 새로운 공동체"

5.1.1. 강의 내용 심층 분석

- 통합 교회의 비전: 통합 교회는 이전 단계(부족, 전사, 전통, 근대, 포스트모던)를 배척하지 않고 그들의 건강한 가치를 모두 수용한다.
 - 부족의 '따뜻함', 전사의 '열정', 전통의 '규율', 근대의 '이성', 포스트모던의 '포용'을 모두 녹여낸다.
- 통합적 생활 수련 (ILP):
 - 몸(Body): 성육신적 영성. 건강 관리, 요가, 절.
 - 마음(Mind): 신학 공부, 경전 연구, 월버 독서.
 - 영(Spirit): 명상, 기도, 예배.
 - 그림자(Shadow): 심리상담, 꿈 작업.
- 미래의 교회 모델: 거대 조직보다는 다양한 발달 단계의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통합적 소그룹 (Integral Pods)' 운동. 가나안 성도들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시작할 수 있는 대안적 공동체 모델.

5.1.2. 과정 마무리 및 파송

- 종합 토론: "우리는 각자의 자리(상담실, 독서회, 일상)에서 어떻게 '통합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 선언: "나는 하느님의 동사(Verb)다." (3인칭 하느님의 실천적 적용)

5.1.3. 참고자료

- 도서: 켄 윌버 등, 『통합적 삶의 실천(Integral Life Practice)』(국내 번역서명: '켄 윌버의 ILP').

6. 결론: 한국적 상황에서의 적용과 제언

본 계획서의 6주간 커리큘럼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참가자들의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고 실천적 수련법도 나누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심리치료자/심리상담자에게는 영성적 차원을 다룰 수 있는 임상적 지도clinical map를, 윌버 독자들에게는 통합이론의 실제 적용사례를, '가나안 성도'나 영성의 심화를 고대하는 분들에게는 신앙의 재건 또는 깊이 있는 영성 체험을 위한 설계도를, 그리고 영성에 관심 있는 인문학도들에게는 포괄적인 지도를 제공함으로써 파편화한 현대인의 갈증을 해소하고 영성을 심화하고 통합하는 기회가 되고자 한다.

특히 한국 교회의 특수한 상황(보수-진보의 대립 구도 하에 강한 전통적/전사적 성향과 급격한 근대화/포스트모던화의 충돌)에서, 이 과정은 '비판'을 넘어선 '치유'와 '통합'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강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각 주차별로 제시된 이론적 배경을 충분히 전달하되, 현장의 역동에 따라 참가자들과 더불어 유연하게 내용을 가감하여 '살아있는 지혜'를 전달, 공유하고자 한다.